

LS산전(주)

## 독보적 직류 솔루션 앞서워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시장 공략

- 27일부터 3일간 'KSGE 2017' 참가 ... 스마트에너지 핵심 솔루션 전면 배치
- 세계 최초 개발 성공 직류전력기기 신제품 공개 ... 신형 ESS용 PCS도 '눈길'
- 자체 에너지 최적 관리 기술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집중 홍보



LS산전이 9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'KSGE 2017' 전시회에 참가했다. 사진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왼쪽 첫 번째),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(왼쪽 두 번째), 구자균 LS산전 회장(오른쪽 두 번째)가 LS산전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

정부의 탈(脫)원전,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으로 스마트에너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, LS산전이 정보통신기술(ICT)과 직류(DC) 기반 스마트 전력기기 신제품과 에너지 효율화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이 분야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.

LS산전은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

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에너지 통합 전시회인 '한국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17'(KSGE ; Korea Smartgrid Expo, 이하 KSGE)에 참가했다고 밝혔다.

LS산전은 35부스(315㎡)로 참가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, "스마트에너지 멀티플렉스 LS산전(Smart Energy Multiplex, LSIS)"를 슬



사진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오른쪽 네 번째), 장병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(오른쪽 다섯 번째), 구자균 LS산전 회장(오른쪽 여섯 번째)가 LS산전 전시장을 참관한 후 기념촬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

로건으로 내걸었다.

이번 전시회에서 LS산전은 ▲직류(DC) 전용 전력 솔루션 ▲스마트 설비 예방진단 및 부분 교체 솔루션 ▲ESS(에너지저장장치 ; Energy Storage System)·EMS(에너지관리시스템 ; Energy Management System) 기반 마이크로그리드(Microgrid) 등 차세대 신재생 DC 솔루션 전략 기술을 선보였다.

DC 전용 솔루션으로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DC 1000V급 기중개폐기(Air Switch Disconnecter)를 비롯해, 국내 최고 용량인 DC 1500V급 배선용 차단기(MCCB ; Molded case circuit Breaker)와 기중 차단기(ACB ; Air circuit Breaker) 등 직류 전용 스마트 전력기기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.

LS산전은 DC 전용 전력기기가 기존 대비 전력 전송 용량은 높은 반면, 송배전 손실은 줄임으로써 발전 효율을 극대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, 독자 개발에 성공한 DC 전력기기 풀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저압직류(LVDC)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.

LS산전은 기존 배전기술에 예방진단용 디지털 센서를 적용,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LS산전 스

마트 배전 솔루션도 소개했다.

LS산전 스마트 배전 솔루션은 센서 등 IoT(사물인터넷) 기술을 통해 시스템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, 상태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설비 보수·점검, 잔존수명 예측 및 운영 합리화까지 원스톱 토탈 엔지니어링(One-Stop Total Engineering)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스템이다.

ESS용 PCS의 경우 기존 제품군과 함께 신제품인 'LS Modular Scalable PCS(프로젝트명)가 공개됐다. 부품을 모듈화해 기존 제품 대비 크기를 30% 이상 줄이면서도, 동급 성능을 유지해 공간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전략 솔루션이다.

공장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시킨 F-EMS와 함께, LS산전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국내 최초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인 '서울대 스마트 캠퍼스 사업' 등 상용화된 실제 관련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.

LS산전은 기존 전시와 더불어 각 사업 분야 관련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노후화된 전력설비를 최소 시간, 최소 비용으로 교체하는 리트로핏(Retrofit) 시연도 함께 진행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.